

## 大學의 潛在的 敎育課程의 문제



德成女大 總長 金 宗 西

敎育課程에 대한 敎育학적 사고가 세련됨에 따라 학교에는 종래 우리가 생각하던 敎育課程과 다른 敎育과정의 있음에 注目하게 되었다. 학교敎育의 성과를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학생들이 배우는 모든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 ‘배우는 모든 것’을 분석해 보면 學校의 計劃과 意圖에 따라 배우는 것도 있고 學校에서는 계획한 바도 없고, 의도한 바도 없는데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 隱然中에 배우는 것도 있다. 전자가 종래 말하던 敎育課程이며 이것을 최근에는 表面的 敎育課程이라고 부르고, 후자는 潛在的 敎育課程이라고 부르고 있다.

종래는 우리의 敎育과정에 대한 관심은 表面的 敎育課程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따라서 敎授의 강의 계획서에 의한 강의에만 힘을 기울여 왔으나 이제부터는 大學의 潛在的 敎育課程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만 올바른 대학교육을 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대학 생활 4년 동안에 배우는 總量은 너무나 많은데 表面的 敎育課程에서 배우는 것보다 오히려 潛在的 敎育課程에서 배우는 것이 더 많으리라고 짐작되기 때문이다.

政治形態가 고정되어 있고, 社會가 비교적 단순하며, 經濟構造도 一様的이며, 單一 價値觀이 지배하던 사회에서는 대학에서의 관심은 表面的 敎育課程으로도 충분하였으나 오늘날과 같이 政治·經濟·社會·文化의 양태가 복잡하고 그 變化 速度가 빠른 시대에 있어서는 表面的 敎育課程에 못지않게 潛在的 敎育課程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知的인 측면에서 보아도 대학생들이 읽는 서적은 강의 계획서에 있는 교수들의 권장 서적만은 아니다. 個人的 취향에 따라 또는 친구들의 권유에 따라 또는 씨클이나 독서 집단의 과제에 따라 너무나 다양하게 읽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 발전에 역행하는 서적을 탐독하는 수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大字報를 통하여 정치 의식이 발달하고 사회 비판력이

---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경향마저 있다. 社會的 측면에서 보아도 그들은 大學生活을 하는 동안에 맺은 인간 관계로 인하여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다른 견해를 받아 들여야 되고, 자신의 뜻에 반하여 행동하게 되고, 응집력을 배우게 되는 등 肯定 및 否定的 측면에서의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진다. 情緒的 측면은 거의 潛在的 教育課程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大學의 本來的 기능은 知性的 계발이고, 社會性 및 情緒的 發達은 學校의 意圖와 計劃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潛在的 教育課程의 영역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大學에서의 潛在的 教育課程의 영역이 얼마나 넓은지를 짐작할 수 있다. 즉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학생들이 경험한 總體로부터 大學의 계획이나 의도에 의하여 경험한 것을 뺀 나머지 전부가 潛在的 教育課程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서두에서 밝힌 바 從來 教育과정이라고 하면 학교의 계획과 의도에 의하여 구성된 表面的 教育課程만을 생각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教育과정 思考의 폭을 넓혀 潛在的 教育課程에도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특히 大學에서의 잠재적 教育과정은 國民學校나 中學校나 高等學校에 비해 훨씬 그 폭이 넓고 깊기 때문이다.

오늘날 大學生 問題라고 하는 대부분이 潛在的 教育課程의 문제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大學에 들어 오면 判異한 文化에 접하게 된다. 大學文化를 이해하기 전에 잠재적 教育과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 新入生 환영회, 노래 부르기, M.T., 씨클 활동, 科學會의 활동, 학생회 주최의 각종 행사, 大字報, 科 討論會, 大學新聞 등이 모두 잠재적 教育과정에 관련이 있다.

잠재적 教育과정은 否定的 측면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肯定的 측면에도 영향을 미친다. 大學의 문을 드나들지 않고 苦學에 의하여 성공한 사람과 大學生活을 즐기면서 대학 졸업 후 성공한 사람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大學의 文化 風土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스며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文化 風土는 대학에 따라서 다르며 어떤 大學을 다녔느냐에 따라 形成되는 氣質이 달라지기도 한다. 德成人은 淑明人, 梨花人, 同德人과 어딘지 모르게 다르며, 서울大의 文化 風土는 延大, 高대, 西江大와 또한 다름을 볼 수 있다.

潛在的 教育課程의 문제는 이론적 차원이 아니라 大學教育의 실제 면과 직결되어 있음에 注目할 필요가 있다.

물론 大學은 眞·善·美로만 가득 차 있는 理想村은 아니며 그곳에는 僞·惡·醜도 또한 共存하고 있다. 學生들은 大學生活을 하는 동안에 이러한 모든 것을 흡수하게 된다. 우리가 大學教育의 潛在的 教育課程을 문제 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人間像과 다른 人間像의 형성이 현저하게 눈에 띄면 그것은 潛在的 教育課程의 영향이라고 보고 이를 分析하여 表面化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